

광주 농업인, 광역시 최초 월급 받는다

광주시, 3~9월 시범 운영

수매가 60% 이내 선지급

250명 대상 20만~150만원

광주시가 국내 광역시로는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광주시는 25일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광산 관내 지역농협 8곳과 26일 광주시청에서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협약을 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관내 광산구 농업인 250여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월

급을 준다. 이 제도는 가을걷이 뒤 농업인이 받을 수매대금의 60% 이내를 선급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것이다.

특히 별다른 수입이 없는 기간에 일정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농업인 월급제는 농민에게 큰 도움을 준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수확 전까지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생활비, 자녀 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재원으로 쓰일 원금은 농협이, 이자는 광주시가 부담한다. 경기, 강원, 나주, 화성 등 전국 10여 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광역시에선 광주가 처음이다.

지난해 4월 시의회 이정현(국민의당·광산1) 의원의 대표발의로 농업인 월급제 지

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제도 시행의 법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지역 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월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급은 수매대금을 선급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방식이며 월급은 농협이, 이자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또 농협이 수매가 끝난 뒤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광주시는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광산구, 북구 등 농촌 지역을 끼고 있는 광주시는 농업인구가 1만2036농가(2016년 기준)에 3만746명이다.

실질적으로 월급제 대상이 될 농협과의

약정 수매 농가는 2500여 농가지만 시범 도입한 올해는 250여 농가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에게 지급될 월급 총액은 10억 2000만원 가량이며 농협에 지급할 이자는 3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월급제에 대한 농업인 반응을 판단한 뒤 내년부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현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 벼 재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농업인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과 함께 영농의식 고취, 안정적인 소득 확보 등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5일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 김정남(오른쪽)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이병훈 민주당 광주동남을 지역위원장.

“광주가 움직이면 국민통합 설득력 커”

‘1987’ 실존 인물 김정남 전 비서관 토크쇼 참석

80년대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했던 김정남(76)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25일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영화 ‘1987’에 등장(설경구 분)해 관심을 모은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광주시 남구 사직동 영어방송국 공개홀에서 이병훈 민주당 광주동남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진행한 토크쇼

‘1987 그리고 그 이후’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민주화를 위한 광

주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죄송스럽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아픔을 딛고 화해와 통합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면서 “광주가 움직이면 설득력이 있고, 국민 통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광주가 문화·도덕 국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서관은 1964년 6·3 한일회담 반대 투쟁의 배후 인물로 구속된 ‘1987 그리고 그 이후’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민주화를 위한 광

주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죄송스럽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아픔을 딛고 화해와 통합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면서 “광주가 움직이면 설득력이 있고, 국민 통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광주가 문화·도덕 국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서관은 1964년 6·3 한일회담 반대 투쟁의 배후 인물로 구속된 ‘1987 그리고 그 이후’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민주화를 위한 광



전남도 함께하는 평창 올림픽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25일 전남도청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실·국장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4개 공원사업 우선협상단 구성 착수

타당성 검증용역도 진행

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대상인 송암·수랑·마륵·봉산공원 4곳에 대해 우선협상단 구성에 착수했다. 4곳 가운데 3곳에서 이의신청과 문제제기가 이어지면 타당성 검증용역도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25일 “우선협상자와 협상을 벌일 협상단을 도시계획, 재무, 법률 등 전문가 3명과 담당 직원 2명 등 모두 5명 규모로 구성해 협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 대해서는 민·관 거버넌스에서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한 ‘공공성 확보 및 1단계 협상기준(안)’을 토대로 타당성 검증용역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마륵공원의 경우는 비행안전6구역에, 수랑공원의 경우는 비행안전5구역에 속해 건축물 높이를 낮춰야함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의 제안서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타락업체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방부 협의, 협상단 검토, 타당성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설명회 등 시민의 견수렴,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자료 등을 거쳐 공원의 기능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13회에 걸쳐 민·관 거버넌스(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일몰제에 대비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서도 모범사례로 거론되고 있다”며 “광주의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들이 난개발에 훼손되지 않고 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지역사회 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중외·일곡 등 광주 3대 도시공원이 포함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논란이 될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의 배점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제안서 평가표도 사전에 공개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철도공사 전남본부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전남 수산물 수출액 2억달러 돌파

전남도의회, 촉구안 채택

전남도의회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직원들이 잦은 전출로 철도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전남본부 직원 채용에 지역인재를 우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25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동욱 의원(순천3·다보리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국철도공사 지역인재 우선 채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안에서 한국철도공사 직원 채용 시 거주지 제한 방식을 도입해 지역본부 소재지에 거주하는 인재를 우

선 채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동욱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 최근 5년간 채용한 직원 91명 중 70.3%인 64명이 타 지역 출신”이라며 “잦은 전출로 인해 결원이 생기고 이는 업무 공백으로 이어져 철도 안전에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철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인재 수도권 유출을 줄이려면 우선 채용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김·전북 효자 품목

전남 수산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2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출의 절반가량을 김이 차지해 수출 효자가 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수산물 수출액은 2억1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1억8700만달러보다 15.5% 늘어난 것으로, 전국 수출량23억2700만달러의 9.3%를 차지했다. 특히 김은 전년대 55.3% 증가한 1억600만달러를 기록, 도내 수산물 수출액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전복 4400만달러(20.4%), 뽕 2200만

달러(10.2%), 미역 1800만달러(8.3%), 넉치 500만달러(2.3%) 순이었다.

수출 상대국은 일본이 1억2100만달러(56.0%)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3500만달러(16.2%), 중국 2400만달러(11.1%), 대만과 캐나다 각각 700만달러(3.2%) 등이었다.

일본 수출은 연화 강세와 수산물 소비 회복세 영향으로 전북(4100만달러)과 김(2800만달러)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은 김 작황 부진으로 한국산 김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음로 166 해가온빌딩 1~5층